

포스트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최윤규 전략기획팀장

“
이제 단순한
피해극복이 아닌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할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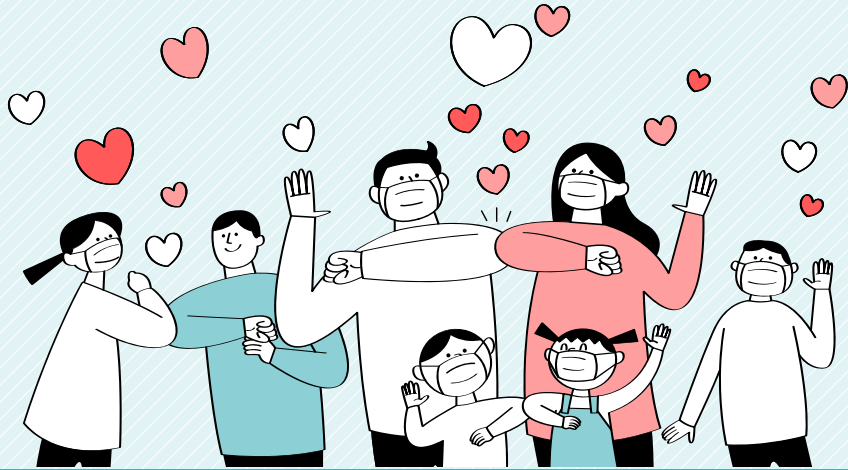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변했다. 예측을 벗어난 재난에 따른 사회적 공포감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계 올림픽 등 메가 이벤트가 연기 또는 취소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국경과 도시도 봉쇄되었다. 일반 시민들은 재택근무와 휴교로 집안에 머물러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았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¹⁾은 구글 트렌드 검색량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 키워드로 ‘언택트 소비’, ‘보건·의료’, ‘가정 내 여가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리모트 서비스’를 선정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감염병 방지를 위한 비대면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 생소하던 ‘팬데믹(Pandemic)’과 ‘PCR 기술 진단키트’, ‘RNA 바이러스’, ‘비말(침방울)’ 등 전문 용어들도 일반인들에게 익숙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3T 전략으로 대응했다. 구체적으로 진단키트로 빠르게 진단(Test)하여 확진환자를 찾아내고, 확진환자 동선을 추적(Track)한 후 공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했다. 마지막으로 확진환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하여 치료(Treat)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와 워크 스루(Walk thru), 공적 마스크, 모바일 자가진단앱 등 창의적인 K-방역(한국형 방역모델)을 실행하였다. 이에 미국 <타임²⁾> 등 해외 언론들은 신속성과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등을 이유로 K-방역을 호평하였다. 결과적으로 K-방역은 ‘드라이브 스루’로 대표되는 광범위하고 빠른 진단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 이를 보도하는 언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0). 코로나19 이후 유망 수출시장: 경기부양책·소비트렌드·수출 통계를 중심으로. 트레이드 포커스, 19.

2) 타임(2020. 2. 24).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어떻게 빠르게 통제될 수 있었는가.



론의 감시기능을 바탕으로 한다. 더불어 유연한 연대와 적극적 시민참여로 K-방역이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라북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의 이동이 절반 가량 감소되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3월 방문객은 1월에 반절에도 미치지 못해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지난해 2~3월에 비해 올해 철도는 60%, 시외버스는 45% 감소되었다. 군산에서 제주를 오가던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노선이 중단되어 하늘길도 막혔다. 코로나19는 전북의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경기악화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상용차 등 전북의 주력 산업이 위축되었다. 일부 국가의 선박 항구접안 불가 방침으로 수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을 지원했고 취약계층에게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상공인에게도 긴급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지원했다. 특히 피해가 심했던 대구·경북지역에 피해복구 특별지원을 시행했다.

이제 단순한 피해극복이 아닌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적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는 국내 상황이 안정되더라도 해외에서 지속될 경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전라북도도 전염병과 관련해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연구원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19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을 준비하였다.